

特許戰路落穂

테트라사이클린의暴利

—輸入으로써 藥價에 制動—

抗生物質은 1929년에 프레밍의 研究에서 始發되었다고 할만하다. 그후 페니실린이 나왔고 이어서 수많은 항생물질이 發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 테트라사이클린은 重要한 항생물질이며 이 特許는 바이처會社에서 保有하고 있었다. 1954년부터 製造는 3個社가 맡았고 販賣는 5個會社인 때가 있었으며 商標名은 테트라진, 아크로마이신, 폴리사이클린, 스티크린, 판마이신등으로서 같은 同一價格으로 市販되고 있었다.

이 藥은 時日이 흐를수록 原價는 變動되고 있었으나 市販價格에는 변동이 없어 美政府는 美國 内外에서 輸入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이때의 美國法律은 製品特許가 있는 商品일지라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可能했으며 그 代身 特許權者는 同一商品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損害를 보았을 때는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가 있다.

1959년에 政府가 實施한 輸入落札價格은 美國內에서는 1값셀에 17센트인데 반해 이탈리아의 것은 8센트였으며 着荷檢査結果 品質도 純度도 훌륭하였다. 그다음 1961년에는 4센트, 63년에는 1.5센트에 落札되어 美國內의 製藥販賣業者들은 不滿이 대단했다.

이때까지 美國內生産 販賣藥局價格은 26센트, 患者들에게의 施藥은 40센트라는 엄청난 값으로 供給되었으나 수입전인 1957년에 美上院 小委員會가 美國內 제약원가를 調査한 바 1.5센트였음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수입의 開放과 아울러 이 事實을 聯邦去來委員會에 提訴하였고 審判結果 販賣 5社는 不法의인 協定價格으로 거래하였음이 認定되어 마침내는 製藥業者들이 市場에 參與하여 6센트로 낮추어 거래하기에 이르렀다. 處方箋에 의한 特定商標名의 藥價는 例外였다.

特許紛爭을 大株主가 解決

—爭訟企業間에 業務提携까지—

企業間의 特許紛爭을 大株主가 中間에 들어 和解로서 解決시킨 본보기 하나.

日本에서는 오랜 時日동안 鋼製型틀用 板設材(조인트 세파레터)의 特許權問題를 놓고 福岡製紙와 豊進製作所가 서로 다투었다. 繫爭의 要旨인즉 콘크리트工事등의 鋼製型틀에 使用하는 板세파레터와 이에 쓰이는 鐵物 등의 實用新案權과 意匠權등 30餘의 特許權을 保有하는 豊進製作所가 先發의 福岡製紙를 相對로 自社權利範圍內의 主要 6種類에 걸쳐 類似品을 製販하고 있다하여 몇個 地法에 製造·販賣禁止假處分申請을 提起한데서 發端하였다.

이에 접한 福岡製紙는 오히려 同製品이

公知의 事實이란 理由를 들어 特許廳에 特許無効審判 등을 請求함으로써 應酬하였다.

따라서 동제품은 土木, 建築用으로 急成長한 産業이며 豊進製作所는 總販賣高의 70%를 占有하는 主力製品인만큼 末端代理店까지 한통이 되어 퍼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해 福岡製紙쪽의 大株主인 松下電器가 彼此間의 경쟁보다는 兩者가 協調한이 有利하다는 見解를 갖고 仲裁에 나선 結果 4月 19日 松下 立會下에 和解와 더불어 業務提携書에 署名하였다.

업무제휴의 形態는 共同으로 同種製品을 製作販賣할 뿐더러 斯種의 新製品도 共同開發한다는 것이다.